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6차 세션

유다는 침입자들과 유다가 설교하는 회중(들) 사이에 두 가지 강렬한 대조를 그려내며 호소력을 이어갑니다. 물론 이러한 대조는 두 당사자 사이에 전략적 수사적 갈등을 조장하여, 청중들이 경쟁하는 교사들의 권위와 본보기를 긍정하는 것, 더 나아가 수용하는 것조차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유다의 청중과 침입자들의 상충성은 서로 대조되는 두 쌍의 진술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16절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17절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에 대하여, 19절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절에서,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의 문단 구분은 유다서에서 직접 사용된 이러한 언어적 단서를 따르지 않지만, 그 단서들은 명백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평하는 자들로, 자기들의 욕망을 좇으면서도 자기들의 운명을 비난하고, 이익을 위해 아첨하면서 입으로는 거만한 말을 합니다.

유다가 침입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들을 불평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 전략적입니다. 이는 출애굽 세대의 특징이었고, 특히 유다가 이미 언급한 두 사건에서 그러했듯이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백성의 집단 반역과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그의 무리의 권력 다툼이 그 예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불평이 인간의 조건에 대한 것이라고 암시하는데, 침입자들은 아마도 짧고 슬픈 우리의 운명을 위해 현재의 삶을 최대한 즐기고 최선을 다하려는 핑계로 이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교묘한 병치를 통해, 침입자들이 자신의 충동과 갈망을 충족시키려는 데 몰두한 것이 인간 조건의 병폐의 원인임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병의 치료법에 헌신하기보다는, 그들은 우리 조건의 뿌리에 있는 질병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유다는 또한 그들을 도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려는 소피스트와 종교적 사기꾼들의 기독교화된 버전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과 영적인 통찰력을 과장해서 말하면서도, 자신들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아첨합니다. 그런 다음 유다는 청중에게, 그리고 그들이 지금 마주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전에 받았던 경고로 주의를 돌립니다. 실제로 유다가 침입자들을 자기 욕심을 좇는 자들로서 묘사한 것은 유다가 지금 상기시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도적 경고의 내용을 예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마지막 때에 자기의 불경건한 정욕을 좇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유다는 예녹의 예언적인 말씀에

더하여 침입자들에 대한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는 이미 역사적 사례나 선례를 바탕으로 그들의 운명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유다가 사도들의 경고를 묘사할 때 사용한 "경건치 아니한"이라는 표어는 앞서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인용한 에녹 전서 1장 9 절의 언어와 공명합니다 . 여기서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뜻하는 어휘인 "아세브"가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유다가 이 사도적 경고를 표현한 방식은 알려진 다른 어떤 사도들의 글과도 문자 그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의 구전 가르침을 회상한 것일 수도 있고, 이기적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잘 알려지고 널리 알려진 경고를 단순히 바꿔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과 24장에서 반드시 나타날 그런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따로 불러 모아 양 떼를 약탈하려는 흉포한 이리떼에 대해 경고하고, 실제로 그러한 경고를 자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요한일서도 비슷한 훈계를 담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조롱하는 자, 특히 유다가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는 침입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진 믿음에 대한 그들의 경멸적인 태도와, 믿음에 따라 사는 것이 자신의 욕망과 쾌락에 빠지게 하는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청중에게 믿음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삶을 약속하는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며, 흠 없는 삶에 걸림돌이 되는 어떤 충동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대조는 침입자와 청중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차이는 침입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자, 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안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훈을 영생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십시오. 유다는 침입자들이 은사적 체험과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더라도, 유다가 8절에서 말했듯이 그들의 꿈은 사실 그들의 타고난 지성과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일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세상적인 마음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프시키키오이'의 의미입니다 . 유다는 이미 10절에서 이를 암시했는데, 유다는 침입자들에게 진정한 영적 이해가 없다고 말하며 그들의 행위와 우선순위가 다른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청중은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 안에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들이 이미 받은 믿음 안에 굳건히 머물러야 하며, 성령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교사들에게 흔들리지 않아야 함을 확신시켜 줍니다.

믿음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 자신을 자매나 형제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사도적 증거의 권위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고, 따라서 흠 없는 실천의 방향으로 성령을 따르겠다고 헌신하지

않는 자들의 영향력에 부정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 또한 믿음이 자신의 삶에서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와 형제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열매가 맺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지향과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으로 이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대하며 앞을 바라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거룩함의 요구와 신성한 사랑의 경험은 여기서 전혀 상반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후자는 우리에게 전자를 성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전자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가 후자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침입자들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에 자리를 내어주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진정한 신자들은 자신을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자비를 구하며, 유다가 24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앞에서 흠 없이 서기 위해 사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은 또한 우리 자매와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특히 그들의 믿음의 실천에 대해 굳건히 서도록 우리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유다는 이렇게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 없이 자비를 베푸소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하여 불에서 꺼내소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픔 없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자비를 베푸소서.”

육신으로 더럽혀진 옷조차도 미워했습니다. 유다는 청중들에게 서로를 위한 보호막 역할을 하도록, 서로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헌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흠 없는 길에서 발판을 잃은 사람들을 형제자매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그들을 회복하도록 힘쓰게 하십니다. 이러한 의무는 다른 사람들의 삶, 특히 종교적 의무를 실천하는 데 따르는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간섭하거나 간섭하지 않도록 훈련받아 온 우리의 현대적 감각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또한 판단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현대적 관념에도 거슬리는 것입니다.

아니하려 함이라”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보다 더 널리 읽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흠 없는 삶에서 어떤 자매나 형제가 멀어져 가는지 분별하라는 의미에서 판단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나 형제가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안전한 발판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대하는 길. 유다는 이처럼 우리 각자를 서로에게 헌신하는 신약의 다른 많은 목소리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구성원 각자가 생명으로 가는 길에 안전하게 머물려면, 공동체적 또는 사회적으로 그들의 신앙과 삶을 강화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서는 “네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 하거든 가서 너희 둘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라. 만일 그들이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들을

구원한 것이요, 만일 그들이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일을 확증하게 하라” 라고 가르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 성령 안에서 사는 여러분은 온유하게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시험을 받을까 봐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진리에서 떠나 다른 사람에 의해 돌아서면, 죄인을 미혹에서 돌이키는 자가 그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줄을 알라. 유다 역시 그의 청중이 침입자들에게도 그러한 경건하고 구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다는 바울이 여러 차례 그랬던 것처럼 이 교사들을 추방하라고 결코 권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단지 그 영향력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을 염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오염이 전염될 경우, 침입자의 행위가 초래할 위험을 청중에게 경고한 그의 방식은 그들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서게 했습니다.

유다는 짧은 편지를 편지의 관례적인 요소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여행 계획, 특정 인물 과 의 인사, 작별 인사, 마지막 작별 인사나 은혜를 구하는 말 등입니다. 오히려 잘 다듬어진 송영,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이는 유다가 자신의 편지가 읽힐 환경을 예상했던 것과 분명 일치합니다.

회중은 예배와 기도를 위해 모였습니다. 어쩌면 12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바로 그 사랑의 만찬 중 하나를 위해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 능히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큰 기쁨으로 그의 영광 앞에 흠 없이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적 전통의 권위를 경멸하고, 그 전통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의 행동을 가로막는 가드레일을 두는 침입자들은 유다가 언급하는 회중(들)에게 잠재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이 침입자의 말과 본보기에 설득되어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믿는 자들을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실 수 있고 , 암묵적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으로 서론을 마무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보존하시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맡겨진 믿음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도 지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짧은 서신의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16절부터 25절에서 권위의 위치,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신실한 응답의 기준을 제시하는 권위의 위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유다는 이 권위가 교회

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은사적 또는 영적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경험이나 육신을 가진 인간이 이 세상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무엇을 얻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새로운 평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시라고 주장되는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진 공통된 전통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며, 이는 유대 경전과 준경전 전통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계시와 일치합니다.

교회 안의 어떤 교사가 권위를 가지려면, 그 교사가 성도들에게 단번에 맡겨진 믿음에 충실하고 그 믿음과 일치하는지에서 비롯됩니다.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공동 이해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그 믿음에 어떻게 자신을 일치시킬지는 새로운 분별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19세기 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방향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음을 향한 헌신에서 벗어나, NIV가 19절에서 '수쿠코이'를 '스쿠코이'로 번역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본능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짧은 서신, 특히 유다서 22절과 23절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본문적 문제가 다시금 드러납니다. 본문의 증언에 따라 두 가지 회복적 행위가 독립된 절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세 가지 회복적 행위가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립니다.

첫 번째 행위의 본질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죄하는 것인가요? 세 개의 독립 조항을 지지하는 증인들에는 바티칸 사본, 의심하거나 논쟁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불에서 그들을 구하여 구원하시오, 두려움과 미움 속에서 다른 이들을 자비로 대하시오 등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 역시 세 개의 독립 조항을 지지합니다. 의심하거나 논쟁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불에서 그들을 구하여 구원하시오, 두려움과 미움 속에서 다른 이들을 자비로 대하시오 등입니다.

그리고 12세기에 시나이산 사본의 교정자가 "의심하거나 논쟁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불에서 건져내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두려움과 미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자비로 대하시며"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복 행위를 나타내는 두 개의 독립된 절을 선호하는 증인들로는 3세기나 4세기 파피루스인 파피루스 72가 있습니다. "불에서 건져내시고, 의심하거나 논쟁하는 자에게 자비와 두려움을 베푸시고, 심지어 옷까지도 미워하시고" 등이 있습니다. 5세기에 두 번 사용된 재기록된 사본인 에브라임 레스크립티(Ephraim Rescripti)로 알려진 사본에는 "의심하거나 논쟁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불에서 건져내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두려움과 미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자비로 대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기 후에 에브라임 사본(Codex Ephraim Rescripti)의 교정자는 "죄수들을 대신하여 자비를 베푸소서", "의심하거나 논쟁하는 자들을 자비로 대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불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오" 등의 문구를 썼습니다. 9세기 사본 세 개도 비슷하게 두 가지 회복 행위를 제시합니다.

아마도 그들과 논쟁하는 동안 어떤 자들을 자비로 대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불에서 건져내시고, 미워하시는 등입니다.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시나이 사본의 본질적인 일치는 짧은 본문이 일반적으로 선호된다는 규칙에 반하여 유다서의 표현을 자신들이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필사자들이 우연히가 아닌 한 본문을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초기 사본인 파피루스 72의 증거에도 반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나이 사본, 바티칸 사본,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 행위를 본질적으로 혼합한 파피루스 72의 증거는 유다가 첫 번째와 세 번째 절 모두에서 자비를 베풀 것을 촉구했음을 시사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본문은 그러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문체적 개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이 구절들을 재구성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자에게는 공흠을 베풀고, 어떤 자는 구원하여 불에서 꺼내고, 어떤 자에게는 두려움으로 공흠을 베풀고,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라"로 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5절에 나타난 본문의 차이에 대한 우리의 면밀한 연구처럼, 이 예는 대부분의 성경 독자들에게 본문 비평이라는 보이지 않는 과제에 종종 수반되는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초기 교회에서 읽히고 사용되었다는 가장 초기의 증거는 놀랍게도 베드로후서에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는 바울 서신이 기독교 교회들 사이에서 유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다소 다른 교사 집단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쓰였습니다. 저자는 유다서의 내용을 엮어 넣는 듯합니다. 그는 5절에서 18절까지에서 다른 교사들에 대한 자신의 비난으로 옮겨가며, 구약성서의 많은 참조와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그 순서는 유다서에서 볼 수 있는 순서와 거의 같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적어도 저자가 유다가 언급하는 팔레스타인 유대 전통에 덜 익숙하거나 수용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독자층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 저자는 유다서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수정하여, 예를 들어 에녹서 1서에 대한 언급을 더 친숙한 성경 본문으로 대체했습니다. 유다서의 사용은 2세기에서 4세기까지 회중들 사이에서 새롭게 등장한 혁신적인 교사들에 대한 공격 도구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유다서의 본문과 수사학을 활용하여 클레멘스가 통치했던 이집트에서 활동했던 3세기 초 영지주의 집단인 카르포크라테스파로 알려진 집단의 영향력에 맞섰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유다서를 베드로후서의 가명 요약본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사도적이지만, 루터는 유다서 자체가 사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장 칼뱅은 유다서를 주석으로 쓸 만큼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19세기 저술가들은 유다서를 바울이나 요한과 같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상보다 열등한 후기 사도적 사교의 표본으로 비판하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의 시대적 분위기는 심판의 날에 자비를 얻는 다소 끈고 좁은 길에 대한 비전과, 그 책이 비난하는 교사들의 다른 견해와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 유다서를 받아들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교회에서 곧바로 정경적 권위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 서신의 권위를 인정했지만, 이미 3세기 초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어 신약성경의 초기 판본인 페시타에는 유다가 생략되어 있지만, 6세기에는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주교 아타나시우스는 서기 367년의 유명한 부활절 서한에서 유다서를 정경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유다가 에녹서 1서의 한 구절을 권위 있는 본문으로 인용했다는 사실은 이 논쟁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베드로후서 저자가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에녹 1서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했습니다. 아마도 독자들에게는 모호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 성경 외적인 언급에 대한 혐오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4세기 또는 5세기 초 교부였던 제롬은 교회 내에서 유다서의 정경적 권위를 부인하는 세력들을 알고 있었는데, 특히 다음 과 같은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비정경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다 경은 유다가 에녹서 1장을 인용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책이 거인들의 아버지가 사람 대신 천사였다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다는 유다가 인용한 에녹서의 특정 구절에는 사도적 신앙에 어긋나거나 이의를 제기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유다서의 권위를 옹호했지만, 초기 교회의 일부 교파는 정반대로 에녹서의 가치를 옹호하며 유다가 에녹서 1서를 인용한 것을 에녹서 1서의 가치와 심지어 정경적 권위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3세기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도 이 진영에 속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유다서뿐만 아니라 에녹서 1서도 정경으로 받아들였으며, 지금도 이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정경에 유다가 등장하는 것은 제 생각에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 짧은 서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정한 계도를 가지고 있음을 먼저 일깨워 줍니다.

복음을 우리의 옛 자아에 맞추는 것, 또는 유다가 표현했듯이, 하나님의 은총을 부당한 자기 방종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주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속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옛 자아를 복음에 일치시키고, 흠 없는 존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며, 이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 감히 이탈해서는 안 될 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의와 모든 불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동일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반역한 천사들을 징죄하시고, 소돔과 그 자매 도시들을 불태우시고, 출애굽 세대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던 자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을 때까지 광야를 떠돌도록 선고하신 하나님으로 변함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의로움 앞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하나님으로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

여기에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데 투자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지원을 활용하고, 영적 발판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다가가 회복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